

제11대 서부발전본부 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2023년 3월 14(화) 13:00	■ 장 소	노동조합 회의실

[회순]

- ☐ 노동의례
- ☐ 성원보고 (제적 8명 중 8명 참석. 김동성동지 참관)
- ☐ 개회선언
- ☐ 회순통과
- ☐ 보고사항
 - 〈보고1〉 본부 주요활동
 - 〈보고2〉 전차 회의결과
 - 〈보고3〉 법률대응 현황
 - 〈보고4〉 지부 현안보고

☐ 심의안건

〈안건1〉 22차 본부 사업평가 승인의 건

 원안 통과

제22년차 사업평가

발전노조 서부발전본부

1. 민주노조 복원 및 조직강화

○ 노동권 사수 및 조직사업 강화 사업: 성과와 한계

: 22년 5월, 사측의 발전직군 직무순환 기준 개선(안)에 대하여, 일방적인 발전직군 직무순환 개선(안) 중단 및 통상근무자 선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발전직군 전직원 서명운동을 3주간 실시하였다. 기간중 전지부 순회설명회를 진행하며, 사측의 일방적인 발전직군 직무순환 기준 개선(안)에 대한 비판과 통상근무자에 대한 선 처우개선 실시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직군 직무순환을 위하여 노사협의를 성실하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서부노조 집행부에서 우리노조의 서명운동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현장

지침으로 내리는 반노동적인 작태가 지속되는등 서명운동이 녹록치 않았음에도, 서명운동 대상자 1,414명중 593(42%)명이 서명에 참여하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우리노조의 주장에 힘을 보태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실천운동은 비조합원의 조합가입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에 봉착하며, 좀 현장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동권 사수 및 강화를 위한 활동을 강구하여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발전노동자 공동투쟁 : 정태모 결성 및 실천

924 기후정의행동 집중행동주간 실천이후, 태안발전 소속 발전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안발전 노동자 모임(가칭 정태모)를 결성 하였다.

「정태모」의 참가조직은 발전노조 태안지부/금화PSC지부 태안지회/발전노조 한산본부 태안지부/KPS비정규직발전노조 태안지회/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이다. 「정태모」는 2주 1회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교육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월1회 소식지 발행 및 출근선전전등 공동실천을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발전노동자의 총고용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발전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각 조직별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위기의식의 크기가 차이를 보이며 실천활동의 결합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올바른 주장과 실천이 지속. 강화된다며, 발전노동자의 단결투쟁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발전노동자 공동투쟁의 모범사례로 발전노조 전지부에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포지부 설립 : 지부장 선출 과제

김포열병합 발전소 건설이 본격화되고 조합원의 김포건설 이동배치가 진행되며, 제85차 중앙위원회에서 김포지부설립을 승인받았다. 김포지부는 총6명의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지난 7월 지부사무실을 확보.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부당한 조합간부(중앙위원. 본부 집행위원)의 일근부서로의 배치전환으로 지부장 선출을 하지 못하고 사고지부로 출발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부당한 조합간부 일근부서 배치전환을 폐지시키는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부장 선출 및 집행부 구성을 위하여 본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 선진 활동가 및 조합간부 발굴, 육성

○ 부당한 조합간부 일근전환 술책을 뛰어 넘어야 한다.

우리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서부노조는 전년도 노사협의회에서 조합간부(중앙위원. 본부 집행위원)의 일근부서로의 배치전환을 합의 하였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구제신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패소하는 부당함을

겪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교대조 근무조 변경으로 각종 노동조합 회의에 대한 교대근무 조합간부의 근태협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노조의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치졸한 술책이었다. 이후 평택지부는 지부조합원 49명중 통상근무 조합원 6명(본부 집행위원 2명 포함). 김포지부는 지부조합원 6명중 통상근무 조합원 3명으로 절대적으로 통상근무 조합원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부집행부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조합간부 일근전환을 환원시키는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우리 노조의 조합원 대다수가 교대근무에 배치된 조건속에서 통상근무인 조합간부를 발굴, 육성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남겨 놓았다.

○ 청년세대 노동조합 활동가(조합간부) 발굴 및 육성 : 담당주체 사퇴로 더더진 사업 노동조합 가입대상중 청년세대 직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며, 청년세대 직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모아내고 실천함으로써 조직 확대 및 민주노조 강화의 전망을 세워내야 하였다. 서부발전본부는 본부 집행위원중 청년사업 주체를 세우고 민주노총 청년사업 워크샵에 참여하는등 청년사업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지만 사측과 서부노조가 합의한 조합간부(중앙위원, 본부 집행위원)의 일근부서로의 배치전환으로 사업담당 집행위원이 직을 사퇴하게 되며 진행되던 청년사업도 중단되게 되었다. 이후 새로운 청년사업 주체를 발굴하고자 하였으나, 교대근무부서 이동, 보직과장 선임등의 이유로 청년세대 본부 집행위원의 사퇴가 이어지며 청년사업 주체 발굴이 더더지게 되었다. 향후 청년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본부 조직강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비전임 간부 한계 속에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갖추어야

또한 비전임 조합간부의 한계가 있고, 활동가 및 조합간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노동 조합내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갖추어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안타깝고,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서부발전본부는 조합간부들의 주체적 역량 강화를 위해 분기1회 조합간부 교육을 진행 하고있다.

이에 따라 22년차는 「자본주의사회와 노동조합(강사:김진순 노동자교육센터 대표) 및 노동조합의 조직운영과 간부의 역할(강사:김진순 노동자 교육센터 대표)」등을 진행하였다. 이에 그치지 말고 ‘함께하는 실천’ 속에서 단단한 신뢰를 구축하고, 소통과 공감 확대로 현장을 조직하여 새로운 선진 활동가 및 조합간부로 육성되도록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교육 및 선전활동

○ 본부 조합간부 수련회 : 참석 확대를 위해 일정 조정

가평소재 「남이섬」 및 마석소재 「모란열사묘역」에서 22년차 본부 조합간부 수련회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수련회에서는 ▶조합간부로서의 활동에 대한 고충과 현장에 대한 진단, 활동강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현장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전망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열사묘역 순례 (강사:문재훈 소장) 및 ▶노동운동사 (강사:최도은 활동가) 교육을 통해 조합간부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노조운동 강화에 실천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하였다.

아쉬웠던 점은 평일에 수련회를 진행하여, 지부 조합간부 및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석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이었다. 이후 현장 활동가 및 조합원 동지들의 참석이 가능하도록 본부수련회 일정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소식지 [발전노동자의 함성] 발행 및 선전사업 : 발전노조로 접근까지 더 세밀하게 본부소식지[발전노동자의 함성] 7회 발행. 성명서. 1회/분기 전지부 현장순회 및 간담회 실시를 통해 정부의 민영화정책 비판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총 고용위기, 현장의 노동 적폐를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조합원 동지들 및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 확대 성과를 만들어 내고,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주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현장 노동자들의 의식을 바꿔내고 발전노조로의 접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노력이 요구된다.

4.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발전산업 공공성 강화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노후석탄발전소의 조기폐지 등 에너지 전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이유로 노후석탄발전소의 조기폐지를 결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원전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대폭 축소하는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다.

서부발전에서 태안화력은 2025년~2032년까지 제1호기~제6호기의 폐지 및 가스발전으로 사업 대체를 결정하고, 구미/여수/공주/원주 등 부지선정 및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평택 기력발전은 2024년 12월 폐지를 예정하고 있지만 그 대체사업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즉 노후석탄발전소의 조기폐지와 가스발전으로 대체 과정에서 발전노동자의 직무축소 및 인력운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되어 발전노동자의 고용위기에 따른 분노는 조성되지 못한게 사실이다.

이는 서부발전 특성상 탈 태안이라는 정서와, 고용위기가 본격화되지 않은 까닭이기도 한 것 같지만 결코 안심할 수도 좌시할 수도 없다.

향후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책수립과 선전 및 실천 활동으로 발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발전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5. 총평

지난 22년차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며 현장 동지들과의 대면 활동을 재개 할 수 있었다. 전지부 현장순회 진행, 중요 현안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본부소식지를 통하여 발전노조의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며 조합원 동지들 및 발전노동자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조직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부족함과 한계를 깨달은 한해였다.

이는 조합간부 일근전환과 같이 우리 노조의 조합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사측과 서부노조의 비열한 방해와 탄압 때문이기도 했지만, 서부노조와의 경계를 보다 뚜렷하게 만들어 내지 못한 우리 활동의 결과일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 조합간부 육성 및 청년사업 강화를 통하여, 조합간부 세대교체 및 조직 강화를 도모하였으나, 일부 청년세대 조합간부의 사퇴는 뼈아픈 아픔으로 남게 되었다. 이는 청년세대 발전노동자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함과 동시에 청년세대 활동가 및 조합간부 발굴을 위하여 본부 사업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결론적으로 이후 본부사업은

- ▶ 발전노조의 올바른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확보하는 것
- ▶ 서부노조와 회사의 노동조건 후퇴 및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현장을 분노를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 조직확대로 연결시키는 것
- ▶ 민주노조 간부역량 강화와 신규활동가 발굴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안전2〉 23년차 본부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 통과

제23년차 사업계획

서부발전본부

1. 민주노조 복원 및 조직강화

- 비조합원대상 조직사업 강화
- 본부 수련회 및 지부순회 조합원 간담회 실시
- 청년세대 노동조합 활동가(조합간부) 발굴 및 육성
- 본부소식지 “함성” 발행 정례화
- 현안 발굴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2. 노동적폐 청산

- 임금체계(직무급 확대) 개악 저지
- 발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사업소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저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참여 및 복지제도 환원 및 확대
- 임금피크제 폐지 및 온전한 정년연장 쟁취
- 공정한 복지수혜 쟁취
- 노조차별 철폐
- 통상근무부서 부족인원 충원

3.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및 발전산업 공공성 강화

- 발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제시 및 적극 대응
-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대활동 강화
- 전력산업 수직통합 또는 발전6사 통합 추진
- 노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설비 확보 및 인력 전환 배치에 적극 대응

4. 해고동지 복직

- 해고동지 현장활동 참여 추진
- 해고동지 복직투쟁 적극 전개

<기타토의>

- 튀르키예·시리아 강진피해 연대사업 성금 모금의 건 (발전노조 2023-13호)
 - 88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 지부별 자발적 모금하여 29일까지 중앙 계좌로 입금한다.
 - 서부발전(주)는 전력그룹사 차원으로 모금에 참여하고, 1억원 성금 전달 완료

☞ 서부발전본부의 성금 모금은 소속조합원 대상으로 1인 2,000원을 모금하고, 중앙 사무처에서 3월 지부 조합비 교부시 사전 공제한다.

○. 채용형인턴 소송관련 논의

- ☞ 노동조합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오월」의 광예람변호사의 소송관련 설명회 진행
- ☞ 지부장 및 본부집행위원이 소송 준비자료 수집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 폐회